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되면 가격붕괴 · 도산업체 속출 우려

본지는 창간 3주년을 맞아 대한인쇄문화협회 비전2010위원회(위원장 민창준)와 공동으로 '인쇄비전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지난 6월1일부터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쇄업계의 현안과 미래를 진단해 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인쇄업체 1천개 사를 표본 추출해 실시했다. 다음은 설문 내용을 분석한 자료다. <편집자 주>

재도약 위해, 인식전환 절실

인쇄업을 문화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쇄인들은 인쇄업을 문화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지식산업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쇄물의 문화적 가치' 37%, '인쇄의 역사성' 10% 순이었다. 인쇄인들은 문화산업으로서의 인쇄에 대해 인쇄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보다는 지식산업으로서의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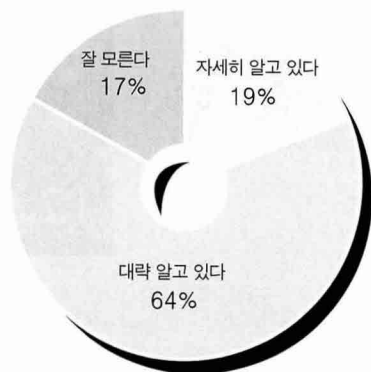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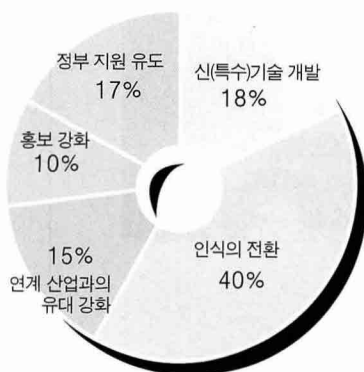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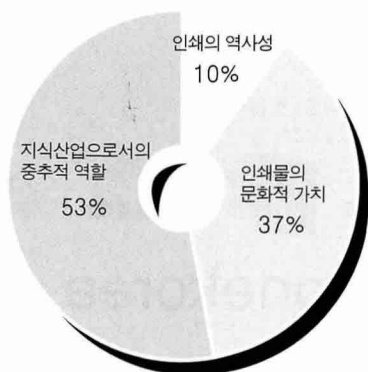
인쇄가 문화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인쇄업의 위상이 높지 못한 현실입니다. 문화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인식의 전환(의식제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문항에서 인쇄인들은 '인식의 전환(의식제고)' 40%, '신(특수)기술 개발' 18%, '다각적인 정부지원 유도' 17%, '출판 등 연관 산업과의 유대 강화' 15%, '대국민 홍보강화' 10% 순으로 응답했다. 여기에서 보듯 인쇄인들은 문화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외부

의 지원보다는 인쇄업계 내부, 즉 업체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고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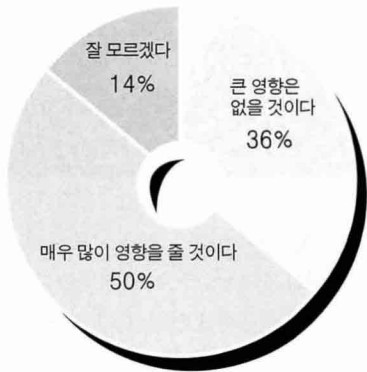
1377년에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입니다. '직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에 대해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64%가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19%가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17%가 '잘 모른다'고 응답해 '직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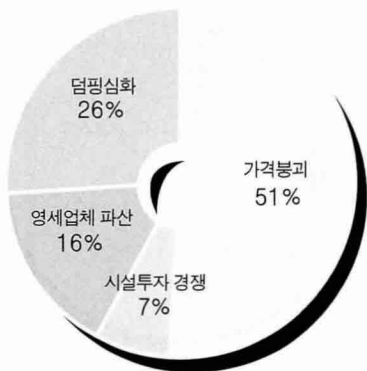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경우, 인쇄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인쇄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가 50%,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36%, '잘 모르겠다'가 14%로 나타났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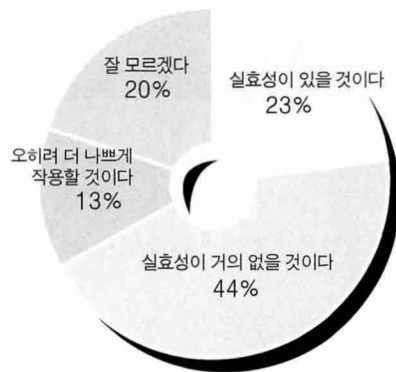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격붕괴' (51%), '덤핑 심화' (26%), '영세업체들의 파산' (16%), '시설투자 경쟁' (7%)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폐지되면 시설을 투자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품질이 향상되기보다는 인쇄가격이 붕괴되고 덤핑이 심화돼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줄도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체 방안으로 성능(품질)인증제 및 구매목표 비율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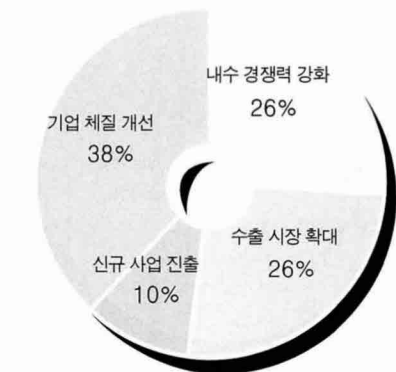
이 대체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대비해 중기중앙회 등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능(품질)인증제 및 구매목표 비율제도 등은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질문에서 인쇄인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44%,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23%, '잘 모르겠다' 20%, '오히려 더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13%로 부정적인 시각이 77%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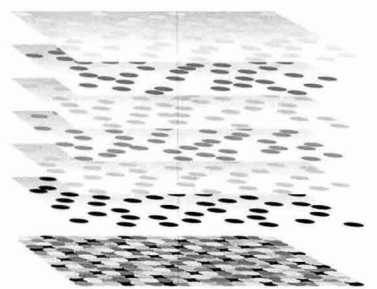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경우, 어떤 부문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 '어떤 부분에서 활로를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분석해 보면 인쇄인들은 기업체질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기업체질 개선' 38%, '내수 경쟁력 강화' 26%, '수출시장 확대' 26%, '신규사업 진출' 10% 순으로 꼽았다. 여기에서 보듯 인쇄인들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인쇄인들은 인쇄업을 문화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지식산업으로서의 중추적 역할'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쇄물의 문화적 가치' 37%, '인쇄의 역사성' 10% 순이었다. 인쇄인들은 문화산업으로서의 인쇄에 대해 인쇄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가치보다는 지식산업으로서의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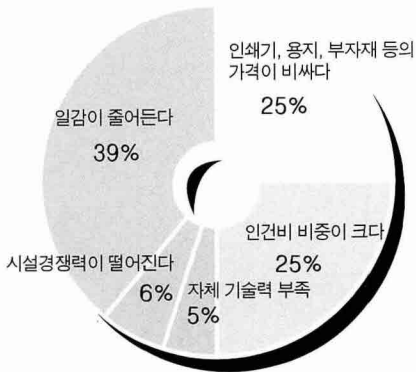




미래위해 품질제고 노력해야

귀사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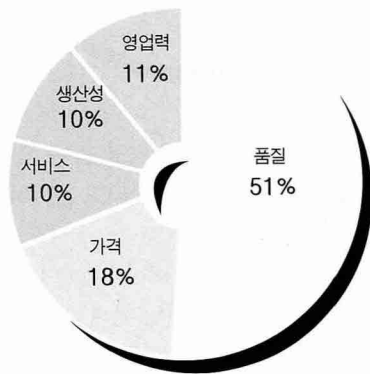
‘부가가치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감부족’(39%)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음은 ‘인쇄기와 용지, 부자재 등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 25%, ‘인건비 비중이 크다’ 25%, ‘장비노후화 등으로 시설경쟁력이 떨어진다’ 6%,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다’ 5% 순으로 응답했다. 여기에서 보듯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물량확보와 인쇄기 및 기자재 가격의 인하, 인건비 인상 자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쇄업계의 미래비전을 창출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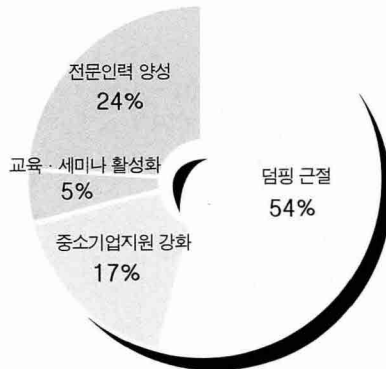
미래비전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에 대해서는 ‘품질향상’이 51%로 가장 많고 ‘가격’(18%), ‘영업력’(11%), ‘서비스 및 생산성 제고’(10%) 순으로 나타났다.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요청되는 부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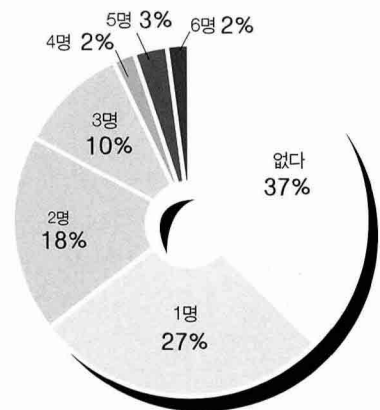
또 업계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점에 대해서는 ‘덤핑근절’(54%)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문인력 양성’(24%),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강화’(17%), ‘교육과 세미나 활성화’(5%) 순으로 집계되었다. 덤핑 성행이 업계 공동발전의 최대 적이며 인력 확보가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내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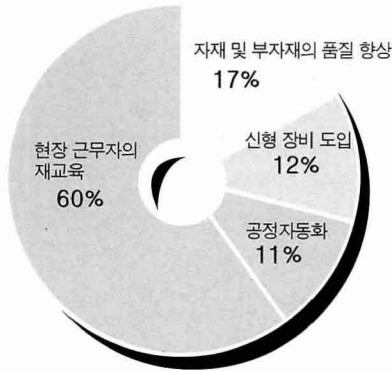
‘사내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3%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 중 품질관리 직원이 1명인 업체가 27%, 2명이 19%, 3명이 10%, 5명이 3%, 4명과 6명이 각각 2%로 나타났다. 많은 업체들이 3명 내외의 품질관리 직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질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장근로자의 재교육’이 60%로 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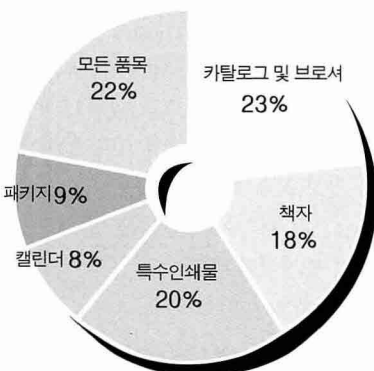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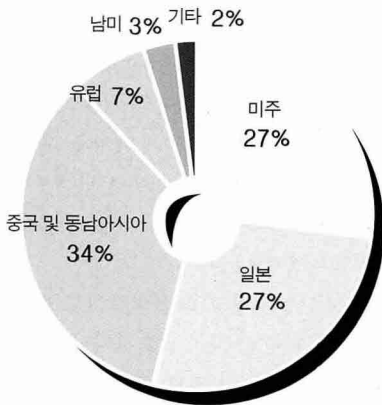
적이었다. 다음은 '자재 및 부자재의 품질 향상' 17%, '신형 장비의 도입' 12%, '공정자동화' 11% 순이었다.



응답업체 20% 해외이전 희망

인쇄물 수출을 위해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인쇄물 수출을 위해 관심있는 지역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가 34%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27%, '유럽' 7%, '남미' 3%, '기타' 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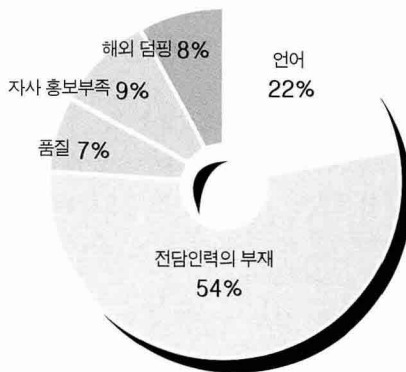


인쇄물을 수출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경우, 대상 품목은 무엇입니까?

수출 품목으로는 '카탈로그 및 브로셔'가 23%, '모든 품목' 22%, '특수인쇄물' 20%, '책자' 18%, '패키지' 9%, '캘린더' 8%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보듯 4색 이상의 고급인쇄물 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수인쇄물도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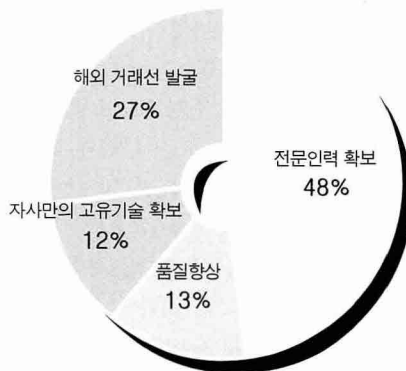
수출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수출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전담인력(부서) 부재'가 54%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은 '언어' 22%, '홍보부족' 9%, '해외덤핑' 8%, '품질' 7% 순이었다.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수출증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은 '전문인력 확보' 44%, '해외 거래선 발굴' 27%, '품질향상' 13%, '자사만의 고유기술 개발' 1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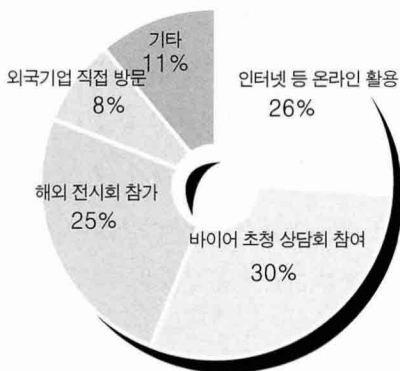


●●● '부가가치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감부족' (39%)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음은 '인쇄기와 용지, 부자재 등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 25%, '인건비 비중이 크다' 25%, '장비노후화 등으로 시설경쟁력이 떨어진다' 6%, '자체 기술력이 부족하다' 5% 순으로 응답했다. 여기에서 보듯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물량확보와 인쇄기 및 기자재 가격의 인하, 인건비 인상 자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바이어는 주로 어떠한 방법을 활용 해 발굴하십니까?

'해외 바이어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 확보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바이어를 직접 초청해 상담한다'가 30%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등 온라인 활용' 26%, '해외전시회 참가' 25%, '기타' 11%, '외국기업 직접 방문'이 8%로 정보화 시대를 반영하듯 인터넷을 활용하는 업체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지사 (분공장) 설립 계획이 있습니까?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20%가 '있다'고 응답해 내수 시장의 불안과 인력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업계 공동 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

·업계가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시 '덤핑근절'이 절실하며 덤핑을 일삼는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통일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며 문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주요 의견들이다.

△인쇄인들의 단합이 잘 되지 않아 가격 덤핑이 심해지고 있다. 모든 재료비는 자꾸 인상되는데 인쇄비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인쇄비용을 선불로 받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덤핑업체의 강력한 규제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되어야 한다.

△거래질서 확립이 중요하다.

△덤핑업체 규제 및 공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정가격 계약, 재하청 수주를 금지(경인쇄사가 오프셋인쇄 수주하면 오프셋인쇄사 괴멸됨)해야 한다.

△모두를 포용하는 대 화합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신용과 공생의식이 필요하다.

△동업자 간의 경쟁관계와 공동운명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인식)이 필요하다.

△공동이익을 위해 양보하고 협조하는 정신을 키워야 한다.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문화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쇄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로 협력하여 제값 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서비스는 경쟁하고 기술개발은 함께 해야 한다.

△서비스 정신을 향상시켜야 한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현장의 기술력이나 지식보다 뒤떨어져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인쇄인의 교육이 필요하다.

△현장 근무자 교육 시스템 제도를 구축

해야 한다.

△조직적이고 거시적인 전문 인력 양산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업계화합과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가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과 비전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품질향상을 위해 꾸준한 연구개발로 신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시장개척 및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경쟁력을 갖추자.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역경매제도의 활성화 유도책, 입찰제도의 강화 또는 유도책 등은 심히 우려할 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의 예산집행(물품구매 등) 방식 및 자체의 식에 있어서도 몸사리기식의 소극적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3D 업종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중소인쇄업체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매년 계속적으로 조달기준가격을 책정케 함으로써 정부기관 뿐 아니라 산하 유관기관 및 일반기업에까지 기준가격으로 예가작성 및 예산반영을 하게 해야 한다.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원색분해가 점점 사라지니 인쇄업이 어찌 발전될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온다.

△모든 발전 방향을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인쇄의 필요성 홍보 및 인쇄비전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세미나 및 컨퍼런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장비의 무분별한 수입을 자제해야 한다.

△결제수단이 개선되어야 한다.

△무허가 업체 난립으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물량을 골고루 배당해야 한다.

△설정된 계획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산학협력이 필요하다.